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소폭 오름세 다만 12월 금리인하 전망은 지속
 - 미국 옐런 재무장관, 환율 조작을 시도하는 모든 국가에 강력 대응할 방침
 - 일본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
 -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0.5%p 인하. 향후에는 점진적 형태로 금리인하 추진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예상에 부합한 11월 소비자물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8%],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2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 초반 낙폭 만회하고 0.3% 상승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향후 재정적자 증가 전망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1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27.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9.4원, 0.10% 하락). 한국 CDS 보합

		12/11일	12/10일	전일대비			12/11일	12/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84.2	6,034.9	+0.82%	국채 금리 10y	미국	4.27%	4.23%	+4bp
	유럽	519.95	518.49	+0.28%		독일	2.13%	2.12%	+1bp
	중국	3,432.5	3,422.7	+0.29%		영국	4.32%	4.32%	-1bp
	일본	39,372	39,368	+0.01%	CDS 5y	한국	37bp	37bp	0bp
	한국	2,442.5	2,417.8	+1.02%		중국	61bp	61bp	+0bp
환율	달러지수	106.64	106.40	+0.23%	위험 지표	EMBI+	-	359	-
	유로화	1.0496	1.0527	-0.29%		VIX	13.58	14.18	-4.23%
	엔화	152.45	151.95	-0.33%		WTI유	70.29	68.59	+2.48%
	위안화	7.2630	7.2498	-0.18%	원자재	구리	421.4	422.4	-0.22%
	원화	1,430.9	1,432.8	+0.13%		금	2,718.2	2,694.3	+0.8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소폭 오름세. 다만 12월 금리인하 전망은 지속

- 11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2.7%, 0.3%를 나타내 전월(각각 2.6%, 0.2%)에 비해 소폭의 오름세 시현. 근원 CPI의 경우 3.3%, 0.3%를 기록하며 전월(각각 3.3%, 0.3%)과 동일한 수준 유지.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의 상승률은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
- 항목별로는(월간 기준) 식품(0.4%), 주거비(0.3%), 신차(0.6%) 및 중고차(2.0%), 의료비(0.4%) 등이 이번 CPI 상승에 기여. 특히 이 가운데 주거비가 전체 CPI 상승분의 40% 비중을 차지. 반면 전기(-0.4%) 등은 하락
-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연율 2%)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근원 CPI 상승률이 4개월 연속 전월비 보합을 나타낸 것은 물가상승 우려를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임대료 상승률이 '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도 긍정적
- 시장에서는 최근 일부 항목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였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Bloomberg Economics). 주택과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세 둔화를 고려하면, 향후 연준이 점진적 금리인하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BMO Capital Market). CME이 FedWatch Tool 역시 12월 금리인하 확률을 94.9%로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엘런 재무장관, 환율 조작을 시도하는 모든 국가에 강력 대응할 방침

- 엘런 장관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환율 조작을 시도하는 모든 국가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지위에 도전하는 통화는 없으며, 금융과 무역 부문에서 달러화와 경쟁하는 통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

■ 국제금융협회(IIF), 신흥국 자금 유입 감소.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 등에 기인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전에 비해 1/4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정책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평가. 아울러 내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도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미국의 정책 전환 반영

- 아시아 신흥국의 금년 및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각각 5.0%→4.9%, 4.9%→4.8%)하고, 미국의 주요 정책 전환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설명. 특히 미국의 무역, 재정, 이민 부문의 정책 변화는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내년 성장률 및 경기부양책 관련 논의 이루어질 전망

-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12일에 열리며, 지도부는 이를 통해 내년의 주요 경제 의제를 다룰 예정. 최근 정부 측 주요 인사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부양책 확대 방안을 다룰 것으로 추정. 다만 통상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는 다음해 3월 양회에서 공개

■ OPEC,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고려

-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일일 161만배럴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전 전망치(일일 182만배럴 증가)를 하향. 내년 전망치도 낮춰서 제시(일일 154만배럴 증가→일일 145만배럴 증가). 이번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를 지목

■ 일본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

- 11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 올라 전월(3.6%)에 비해 상승세 강화. 3개월 연속 도매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NRI)

■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0.5%p 인하. 향후에는 점진적 형태로 금리인하 추진

- 핵심 정책금리인 익일물 레포 금리를 0.5%p 인하(3.75%→3.25%)한다고 발표. 맥클렘 총재는 향후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 아울러 미국의 관세 위협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생산자물가 및 1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ECB 통화정책회의
- 스위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호주 11월 실업률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취임 직후 정책 개편 예고, 엘런 재무장관은 트럼프 관세 우려

-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정책 개편 예고** : 취임 첫날 25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 이는 첫 임기보다 더 신속하고 광범위한 규모. 특히 이민 규제 강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할 전망
- **미국 엘런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우려 표명** : 엘런 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계획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저해하고 가계와 기업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최근 베센트 차기 재무장관 지명자와의 면담에서 재무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조했고,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가능성도 경계
- **트럼프, 주요 임명직 인선** :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앤드루 퍼거슨 現 FTC 위원을 지명. 퍼거슨 지명자는 보수적 성향으로 빅테크 검열 강화를 주장. 한편 멕시코 대사로 로널드 존슨 前 엘살바도르 대사를, 그리스와 터키 대사로는 각각 차남의 약혼자인 김벌리 길포일 前 FoxNews 진행자, 톰 배럭 Colony Capital 창립자 임명
- **미국 금융기관,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 기대** : 트럼프가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금융기관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 기회 기대감을 표명. 특히 신용카드 경쟁법 개정과 M&A 활성화, 증시 활황에 따른 IPO 증가 등으로 은행권 수익이 크게 증가할 전망

■ [해외시각] 중국, 트럼프發 무역 갈등 대비책으로 수출규제 및 위안화 약세 준비

- **중국, 트럼프 發 무역 전쟁에 대비** : 트럼프 취임 이후 예상되는 무역 갈등에 대비하여 Nvidia 반독점 조사, 희귀 광물 수출 제한 등의 견제 수단을 마련. 이는 무역 협상용 카드를 확보하면서도 양국 관계 악화는 피하려는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 한편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보복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Bloomberg)
- **중국, 트럼프 관세 고려하여 위안화 약세 용인 검토** : 당국은 트럼프의 對中 관세 부과를 감안하여 내년 위안화 약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특히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7.5위안까지 낮추는 내용을 검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환율 안정 기조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Reuters)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항방, 트럼프 정책과 여타국 경제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될 소지 - WSJ

(The Fate of Markets Rests on Trump's Dollar Policy)

- 트럼프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달러화 약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 하지만,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의 감세 및 관세 정책, 에너지 수출 확대 계획, 양호한 미국 경제 등으로 10월 초 이후 선진 교역국 대비 5% 상승(신흥 무역국, 4%)
-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협상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과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재정적자 축소 의지가 성과를 보이면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될 소지. 또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유럽의 생산성 향상 현실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달러화는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전망

■ 미국의 증시 호황, 과도한 미래 낙관에 기인. 성장 둔화 가능성도 주의 - Financial Times

(New eras, same bubbles: the forgotten lessons of history)

- 최근 증시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투기 거품이라는 주장이 제기. 특히 최근 비금융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총수익 비율이 정점을 기록했던 1929년과 '00년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 이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 등에 기인. 일부는 혁신기업의 이익 마진 증가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의 근거로 주장
-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끊임없이 혁신기업이 출현했으나 비금융기업의 이익 마진은 대체로 불변. 오히려 감세 및 금리인하가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또한 기존의 경제 여건과 인구 등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경우 향후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

■ EU, 트럼프 관세 대응보다 내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 - 블룸버그

(The EU Needs to Rediscover Its Single-Market Compass)

- 유로존은 트럼프 관세 대응으로 보복무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양국 모두에 부정적. 특히 성장 둔화를 겪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소지. 이에 EU는 무역전쟁보다 다음 세 가지 부문의 역내 문제 해결이 중요. 첫째, 상품과 서비스, 자본 및 노동 분야에서 역내 국가 간 마찰과 규제에 의한 손실 축소
- 둘째, 관료주의로 인한 투자 장애물 해소가 절실. 셋째, 자본 접근성 관련 구조적 변화가 요구.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은행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증권·세무·투자 등 세부 부문에서의 국가 간 통합과 협력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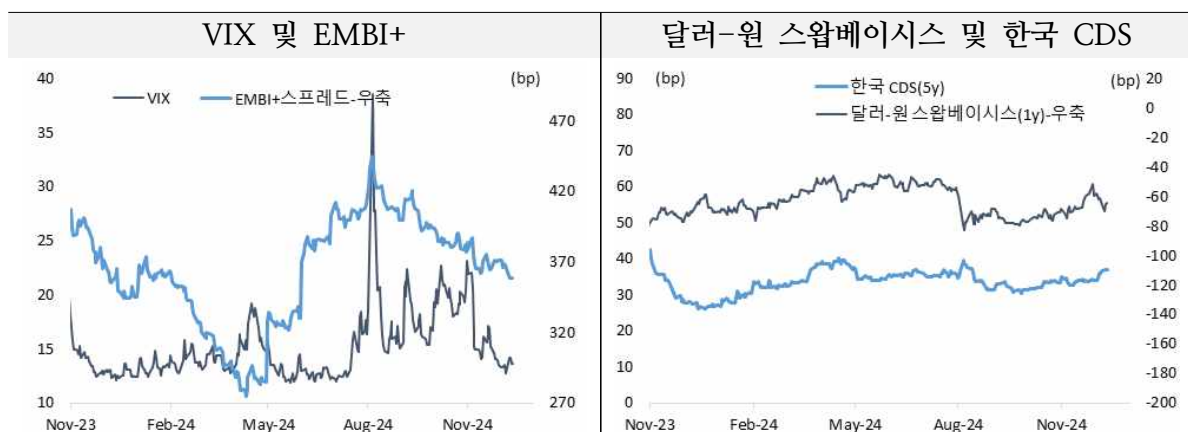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